

나지완 빠진 KIA 좌익수 이우성을 주목하라

이우성, “수비에 자신감 커져 부담보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이진영도 남다른 각오로 준비



나지완 빠진 외야에 경쟁의 시간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캡틴’ 나지완이 28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엔트리에서 빠졌다.

나지완은 지난 16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좌전안타를 기록한 뒤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됐다. 이후 옆구리 통증이 계속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완벽한 회복을 위해 나지완의 이름을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게임 중간에 통증이 와서 교체되는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불편함을 느껴서 확실치 치료하고 가기로 결정했다”며 “통증 때문에 배트가 뒤에서 길게 나오는 등 나쁜 버릇이 생겼다. 메커니즘 부분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지완이 빠지면서 올 시즌 나지완에 이어 팀에서 가장 많이 좌익수 자리에 선 이우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우성은 이날 경기 전까지 18경기에서 22타수 6안타, 0.273의 타율로 2타점을 기록했다. 만폭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올 시즌 한층 더 끈질긴 승부로 타석에 서고 있다. 무엇보다 수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윌리엄스 감독도 “스프링캠프 때 몸 컨트롤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 느낌을 기억하면서 게임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우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숙제’를 잘 풀었다.

이우성은 “마무리 훈련할 때 제 영상을 틀어놓고 감독님과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숙제를 주셨는데 송지만 코치님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많이 알려주셨다”며 “스윙하면서 끝반이 뜨는 자세를 수정하려고 했다. 이걸 연습밖에 답이 없다. 연습을



지난 1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SSG의 경기에서 좌익수 이우성이 호수비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많이 했다. (최)형우 선배와 캠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 상의를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루틴’이다.

이우성은 “경기를 많이 안 나간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이제 핑계다. 아침에 나와서 시합 나가든 안 나가든 루틴 훈련을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다. 꾸준히 지켜다보면 시합 때 알아서 나오는 것 같다”며 “야구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루틴이고

팀 상황을 보고 있다.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이고,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비에서는 ‘자신감’이 키워드다.

이우성은 “코치님, 선배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수비 나가면 혼자 불안해하고, 내가 못하는 수비였지 생각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야구해서는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았다. 수비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회 앞에 선 이우성은 “즐기겠다”고 말한다.

이우성은 “아직 시즌 초반이고 기록을 보면 잘하는 것도 아니다. 잘해야 하는 나이가 됐으니까 부담감보다는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며 “지완이 형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지완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극된 외야수 이진영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이진영

이진영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작년보다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 적으로나 이제 어리지 않다. 어려서 실수한다는 변명은 안 통하니까 잘 해야 될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어이없는 실수를 안 하려고 집중하고 있다. 타격에서는 팀에 도움이 되게끔 상황에 맞는 훈련을 하면서 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리페는 괴로워

광주FC 주포 ... 집중 견제 받고 오심에 땅 치기도

광주FC의 펠리페에게는 ‘잔인한 4월’이었다. 2019년 K리그2 득점왕에 빛나는 펠리페는 K리그1으로 복귀한 지난 시즌 24경기에 나와 12골을 터트리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올 시즌에도 팀의 주포로 기대를 받았지만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3골에 머물고 있다.

부상으로 지난 3라운드 대구전을 통해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한 펠리페는 6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마수결이포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는 머리와 발로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골사냥에 나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매 경기 펠리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일단 상대의 집중 견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가장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멍투성이가 되고 있다.

심판도 ‘남의 편’이다. 상대의 교묘한 반칙에도 심판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펠리페 견제 작전에 광주의 공격도 자주 흐름이 끊기고, 그만큼 경기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펠리페는 약조전에서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4월 팀은 3승과 함께 아쉬운 3패를 남겼다.

포항과 대구에는 0-1, 1점 차 패를 기록했다. 5개 슈팅과 14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아쉬움은 컸다. 특히 대구전은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라 됐다.

이날 전반 34분 펠리페가 헤이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까지 진입했다. 상대 수비진이 올라오기 전에 펠리페가 적까지 파고들면서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펠리페는 슈팅 시도도 못 해보고 땅을 쳤다.

급히 펠리페를 따라붙은 대구 홍정운이 다리를 든 채 팔까지 이용해 펠리페의 질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펠리페가 넘어졌지만 심판진은 이를 외면했다. 끝내 파울 판정이 나오지 않았고, 펠리페는 억울함에 몇 차례 땅을 쳤다.



광주FC 펠리페

적극적인 공세에도 득점을 하지 못한 광주는 결국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후반 29분 에드가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페널티킥이 선언됐다면 경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만큼 통탄의 장면이 됐다. 지난 27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이 장면을 ‘오심’이었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34분경 대구 페널티 지역 안에서 대구 홍정운이 광주 펠리페의 돌파를 저지한 플레이는 반칙에 해당하므로 페널티킥을 선언해야 한다”고 오심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미 경기는 끝났고, 광주는 잘 싸우고도 패자가 됐다. 그 장면의 중심에 있던 펠리페의 안타까운 외침을 외면했던 심판진은 불명예스러운 오심을 남겼다.

외로운 펠리페를 구하기 위해 수준 높은 판정과 함께 동료들의 골도 필요하다. 펠리페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 시킬 수 있는 골이 절실한 광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프리카 유소년 위해 축구용품 기부

광주FC가 아프리카 유소년을 위해 축구용품을 기부했다.

광주는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사무국에서 사단법인 코코넛 서양란 상임이사, 광주FC 최만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소년을 위한 축구 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은 코코넛의 아프리카 축구 재능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광주는 축구선수의 꿈을 꾸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유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유니폼, 트레이닝복, 축구공 등 용품을 지원했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코코넛은 국내·외 인권 취약 계층 구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NGO(비정부 기구)로 광주와는 2018년 유소년 물품을 아프리카에 전달하면서 인

연을 맺었다.

코코넛 서양란 상임이사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나눔을 함께 해준 광주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올 시즌 광주가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만희 대표이사는 “광주는 시민들에 의해 창단된 시민구단인 만큼 이런 뜻깊은 기부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 11명 압축 손흥민 포함

김학범 감독, 50명 예비명단 제출 ... 황의조·이강인 등 거론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이 ‘와일드카드’ 후보 11명을 압축했다며, 손흥민(29·토트넘) 등이 포함됐다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2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전 포지션에 걸쳐 11명이 올라가 있다”면서 “손흥민도 들어가 있다”고 공개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최종 엔트리(18명)는 6월 30일 마감인데, 대회 출전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50명의 예비 명단이 제출된 상태다.

올림픽 남자 축구는 23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야 하지만, 24세 이상 선수 3명을 와일드카드 로 뽑을 수 있어서 각 팀 전력의 관건으로 꼽힌다.

그중 한 명으로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함께 일군 인연이 있는 손흥민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호흡을 맞췄던 김 감독의 애제자 황의조(29·보르도)도 이름을 올렸다.

황의조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감독이 부른다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감독은 “그 선수(황의조)도 11명에 들어가 있다. 본인이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고마운 일이다”라며 “우리 팀에 쉽게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포지션이 더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선발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내 복귀설이 잇따랐던 또 다른 와일드카드 후보 권창훈(27·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질문에도 김 감독은 “11명에 들어와 있다”고 답하며 “마찬가지다. 우리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들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와일드카드 대상 11명에 관해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접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와일드카드 대상이 아닌 선수 중엔 유럽 무대에서 뛰는 이승우(23·포르티모넨스), 이강인(20·발렌시아), 정우영(22·프라이부르크) 등이 거론됐다.

이들에 대해 김 감독은 “(50명) 명단에 다 있지만,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A대표팀에 뽑힌 선수라고 해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동일선상, 동일 조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